

라미화장품 포장용기 디자인 (2)

1997년 카타리나 지오 스킨케어



지구 "자연"의 뜻을 의미하는 GEO라는 브랜드와 함께 자연 회기성, 자연 화장품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존 가카리나 지오의 무거운 이미지를 현대적인 색상과 선으로 고급화시킴으로써 경쟁 제품보다 수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디자인되었다.

타원에서 시작해 원으로 끝나는 안정된 구조로 아랫면으로 편중된 무게 중심은 시각적인 면은 물론 사용, 보관시 안전성을 준다. CAP 중앙에 Silver Ring 장식을 포인트로 습각 조각을 넣어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필기체 로고 삼십으로 제품의 개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998년 인클리어

잡티제거, 클리어한 피부를 주 컨셉으로 20대 자기만의 개성을 창출하고 자신의 실에 최선을 다하는 센스는 여성을 타겟으로 설정하여 깨끗하고 특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주었다.

역삼각형의 2단으로 설계된 Cap은 왼쪽과 아래쪽을 각각 다르게 하여 Capping이 순미하도록 하였다. 스킨과 로션의 내용물 특성상 같은 비율로 소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스킨 180ml, 로션 150ml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며 표면에 불산 부식처리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국내 화장품 패키징디자인 발전사례



1998년 지오 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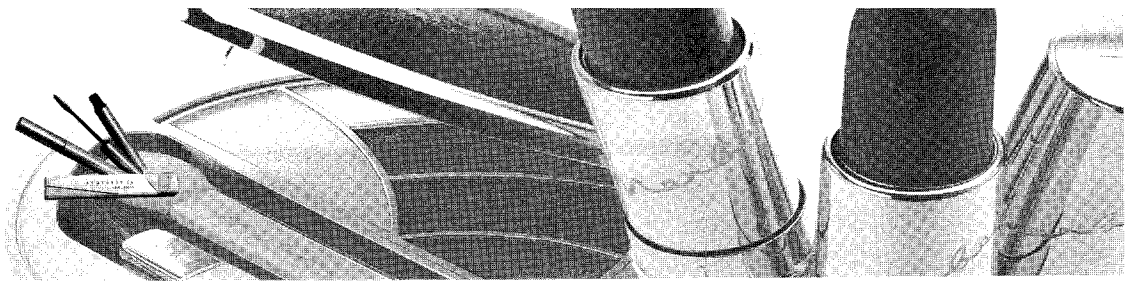
현대적이고 세련된 신세대 감각의 남성 화장품 지오 우모는 기존에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심플하게 디자인하여 사용감과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다크한 블랙와 레드로 컬러링하여 심플한 디자인임에도 무게감을 주었으며, 중추함과 고급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컬러로 품목을 식별할 수 있다. 깨끗한 로고디자인과 그래픽 처리로 심플함을 강조하였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클라데이션 처리를 하여 컬러의 변화와 전체적인 유행성을 부여하였다.

캔에 모서리 처리를 하여 디자인적 리신의 변화와 캠핑의 숭미성을 부여하였다.

1998년 매직클리어 스킨케어

매직 클리어는 주니어들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10대의 발달함을 귀여운 캐릭터와 송기 웨이프로 표현하였다. 웨이브진 송기의 선, 엠조싱 처리된 송기 표면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해 준다.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고 투명한 패키지를 사용하여 내부를 보여줌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또한 귀여운 캐릭터와 로고 디자인으로 오피스적 느낌을 주어 화장품을 처음 사용하는 10대 초반 여성들에게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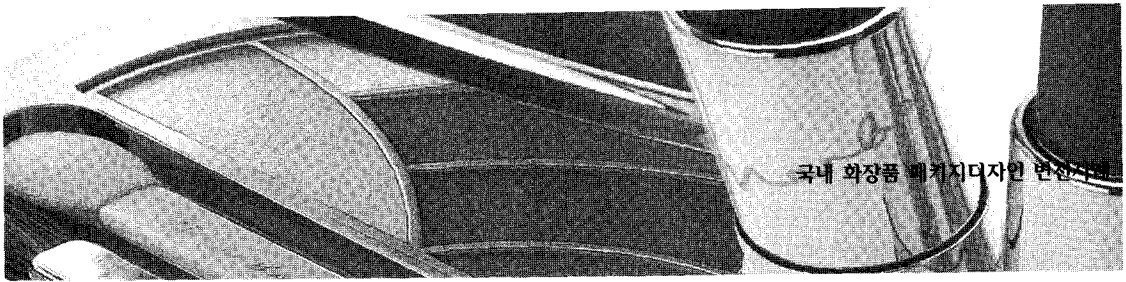
1999년 지오 식물수 스킨케어

지오 식물수는 캐나다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순수 자연 화장품이다. 잠기에 가장 편안한 굵기의 긴 원형 송기로 세련된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원뿔형 캡으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형태를 잘 조화시켰다. 캡에 나선형 줄무늬로 식물미(나시테) 자라나는 형상을 디자인 포인트로 삼았다. 주 칼라를 화이트로 보조컬러를 그린을 선택하여 깨끗하고 싱그러움 식물성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0년 지오 링클 인텐시브 스킨케어

지오 링클 인텐시브는 30대 여성들의 잔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신뢰감과 고급감, 사용성을 위주로 디자인되었다. 이중송기(외송기: 아크릴, 내송기: 폴리프로필렌)와 이중캡으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제품에 고급감을 주었다. 원기둥송기를 사선형으로 절단하고 중간에 금장식을 주어 장식적 쇼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심플함을 유지하였으며, 클래식하며 모던한 이미지를 주며 중추한 느낌을 살렸다. 클리어한 컬러사용과 깨끗한 송기의 이미지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내 화장품 패키지디자인 편집작품



2001년 지오 네이처 스킨케어

지오네이처는 자연지향성 천연 화장품임을 포인트로 원기둥 형태를 삼등분하여 송기, 캡, 어깨로 나누었고, 각각이 단차를 주어 성장을 의미하며 디자인적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중간 부분에 장식을 씌어 디자인 포인트로 하였고 각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게 컬러 변화를 주었다. 이중 캡에 내캡은 화이트로 외캡은 투명재질로 시영하여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디자인하였다. 단순한 원기둥에 변화를 주어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끌어냈다.

2001년 바오 비저블 스킨케어

고대 건축기둥을 연상시키는 바오 비저블만의 독특한 송기 세이프는 모던한 느낌을 주고 화이트 컬러의 깨끗함은 청결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 준다. 타원형 송기에 주름을 주어 늘씬하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중앙에 사각의 돌출 부위를 주어 신채를 할 수 있게 공간을 주었다. 캡 상단의 금, 은장식으로 포인트를 삼았으며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슈리송기에 단순한 부식처리로도 충분히 고급감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